

# 켄텍 학부생, 글로벌 에너지 연구 무대 본격 진출

정자운 학생,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인턴십 선발

김새봄 학생,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국비장학생 합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부생들이 국제기구 인턴십과 해외 연구 파견 프로그램에 잇달아 선발되며 글로벌 무대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9일 켄텍에 따르면 정자운 학생(학부 4학년)과 김새봄 학생(학부 3학년)이 각각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인턴십과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국비장학생에 최종 합격했다.

정자운 학생은 외교부 주관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UNIDO 인턴십에 최종 합격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UNIDO 본부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포용적이고 지

속가능한 산업 발전(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산업 역량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 대응,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업·혁신·인프라를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9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에너지와 산업 전환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큰 기관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 학생은 SDG 혁신 경제변환국(Directorate of SDG Innovation and Economic Transformation, IET)에 배치돼 수소 에너지



정자운 학생

김새봄 학생

산업의 최신 동향 조사, 관련 정책·규제 분석 지원, 국제 행사 참여 등 수소 분야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자운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국제무대에서 세계가 함께 마주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져왔다”며 “UNIDO IET 부서에서 에너지 공학 전공과 켄텍 HYL0T (Hydrogen Lique-

faction & Value Chain Optimization Technologies)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조율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새봄 학생도 해외 선도 연구기관 파견 대상에 선정되며 켄텍 학부생들의 글로벌 진출 성과를 더했다.

김새봄 학생은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Max Planck POSTECH/Korea Research Initiative, MPK)가 주관하는 한-독일 글로벌 인재 양성 플랫폼 국비장학생에 선발돼, 오는 9월 초부터 독일 울리히 기후·에너지시스템연구소에서 6개월간 파견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주제는 ‘에너지 전환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에너지 기술의 사회적·경제적 실현

에 대한 관심을 국제 연구 현장에서 한층 심화할 계획이다.

김새봄 학생은 “미네라바 등 켄텍의 융합 교육 과정을 통해 공학기술을 경제성, 사회, 정책의 관점과 연결해 이해하는 시간을 키울 수 있었다”며 “에너지공학을 전공하면서도 기술이 실제 사회와 제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확산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만큼, 이번 파견연구를 통해 공학과 정책을 잇는 연구자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이공계 대학생을 독일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등 세계적 연구기관에 파견해 글로벌 연구 환경을 직접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부 ‘나눔 봉사’

효령노인복지타운 점심 배식  
매월 둘째주 정기봉사 활동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부는 9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재수 광주지회장을 비롯해 협회 소속 봉사단원 1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배식하고 안부 묻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식사 배식뿐 아니라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정서적 교감에도 힘썼다.

광주지부는 이번 효령노인복지타운 배식 봉사를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 돌봄 지원, 소년소녀가장 후원, 김장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수 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부는 9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2006년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회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현재 전국 12개 지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간

민간 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한중 가교로 개척과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전남혈액원-광산구 여성단체協, 헌혈 협약

11월까지 헌혈의집 첨단센터 등서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광주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 헌혈자 증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헌혈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진성 광주전남혈액원장, 이광선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광주전남혈액원·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는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여성 헌혈자 증대를 목표로 11월까지 헌혈의집 첨단센터와 송정역센터를 중심으로 헌혈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캠페인·교육, 명절 나눔 행사 등을 증점적으로 추진한다.

이광선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광산구 여성단체들이 연합으로 헌혈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헌혈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여성 헌혈자들이 더욱 증대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ty123@gwangnam.co.kr

## 전남·경북 어르신 생활체육 교류전 개최

12일까지 김천서 화합의 장  
6개 종목 친선경기 펼쳐

전남과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경북 김천에서 한자리에 모여 생활체육을 통한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김천시 일원에서 ‘2026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연계해 진행되며, 영·호남 지역 간 상호협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표 교류 사업으로 마련됐다.

전남 선수단은 본부 임원 18명과 선수

72명 등 총 90명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파크골프 등 6개 종목에서 경북 선수단과 친선경기를 펼친다.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는 지난 2014년부터 양 지역이 해마다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어오고 있다. 65세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스포츠를 매개로 교류하며 지역 간 이해와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참가자들은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한 뒤 종목별 교류전과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여가문화를 공유하고 영·호남 화합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의미를 더한다.



지하에 열린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사진.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 선수단 소속 게이트볼 동호인 김춘식씨(85)와 김경에서(75)가 최고령 참가자로 선정돼 경상북도체육회장 감사패를 받는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직지사에서 환경식을 가진 뒤 직지사와 김천시립박물관을 둘러보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환경연에 참석한다.

11일에는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식 참석을 시작으로 화합 오찬, 생활체육 교류전, 환영 만찬 등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사명대사공원과 친환경생태공원, 김천세계저자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김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2박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하경 기자 hajong2@

## 장흥새마을회, 농번기 마늘 수확 구슬땀

장흥새마을회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장흥군협의회는 최근 대덕읍 신촌마을의 한 마늘 재배 농가에서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영농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직장협의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마늘밭에서 마늘 수확과 정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장흥군협의회는 영농봉사, 환경정화활동, 재능나눔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장흥새마을회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 게시판

**결론** △김광호(여수시청 도로교통국장)·박한주(전남도청 주무관) 씨 딸 수연(비기닝뮤직엔터테인먼트 원장) 양, 김태연·박금남씨 아들 도영군=21일(일) 낮 12시 메리포엠 B1 메이저룸(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9-1)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람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경제지도사부유지원 062-369-4009.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차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부.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ონსე (음력 4월 25일)

48년생 뇌혈관 계통 건강을 조심하라  
60년생 모든 일의 진행이 더뎠던 날  
72년생 친한 사람중에 해를 끼치는 이가 있다  
84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라  
96년생 힘들어도 꼭 이뤄지니 기뻐하라

51년생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63년생 욕심이 과하면 송사로 확대될 수 있다  
75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환영 받을 것  
87년생 천천히 하는 편이 완벽함을 이룬다  
99년생 도처에 인연 있으니 나가면 얻겠다

54년생 주체적으로 유도해나가야만 한다  
66년생 투기성이 있는 일에는 손대지 마라  
78년생 시댁이 까다로우니 고민이다  
90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하라

57년생 바라던 모든 것이 때를 만나듯하다  
69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의 폐해를 볼 수 있다  
81년생 도처에서 시련의 바람이 분다  
93년생 불어서 이거도 더 되는 것이 없다

49년생 총을 겨누고 있는지 모르니 주의하라  
61년생 의문의 실체를 파악하는 기쁨이 있다  
73년생 고열에 시달리나 시간 지나면 저열된다  
85년생 길장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다  
97년생 변화무쌍함을 보일것이다

52년생 구슬을 차단하라  
64년생 지인과 오해가 풀려 화합을 도모한다  
76년생 부동산 거래는 절대 안 되니 단념하라  
88년생 남자와 접촉이 많아지는 날

55년생 속 좁은 생각을 버려라  
67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할 시기  
79년생 바로 잡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다  
91년생 친구 관계 어려울 것이다

58년생 무심코 드나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70년생 긴 안목으로 추진하면 얻는 것 많다  
82년생 담야 두지 말고 내버려 두되 되겠다  
94년생 사고가 우려되니 경솔한 언행은 삼가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미룰 수 없는 여형이라면 미뤄라  
62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형운이 따른다  
74년생 일이 여의지 않으면 번이 많다  
86년생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한다  
98년생 형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라

53년생 경험 살려서 대처한다면 무난하겠다  
65년생 늦게 이뤄지니 마음 태우지 마라  
77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일취월장 발전한다  
89년생 좋은 친구랑 여행을 떠나라

56년생 평상시에 애는 대로 행하면 그만이다  
68년생 이제야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때  
80년생 과감히 밀고 나가라  
92년생 경솔하고 성급하면 손해 난다

59년생 들춰내는 것보다 덮어 두는 편이 낫다  
71년생 포성이니 승진수 있다  
83년생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95년생 선배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